

내년 세계경제 미·중 무역전쟁 피해 본격화

수출주둔 둔화·기업 심리 약화 글로벌 제조업체들

이익 전망 낮추고 전략 수정

올해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는 26일 세계 컨테이너 40%가량을 처리하는 로스앤젤레스(LA) 화물항의 수입 물동량과 세계 2위 규모인 싱가포르항 컨테이너 처리량 등을 근거로 세계 화물 운송이 둔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관세율을 올리거나 중국산 제품 전체로 부과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위협한 이후 선 수출 물량이 몰렸지만, 이런 효과는 지난 달부터 두드러지게 사라졌다.

독일 IFO연구소의 사업 기대치 설문조사, 미국과 중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 조사의 신규 수출 주문 항목을 보면 기업 심리도 약해지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의 수출 지표를 봐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실제로 기업들은 이미 타격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미국 카메라·드론 제조업체 고프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 생산량 대부분을 중국 국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운송업체 페덱스는 최근 내년 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구슬 아이스크림 브랜드 디핀다트는 3년간 중국 시장에 진입하려 안간힘을 쓴 끝에 올해 첫 매장을 열었으나 두 자릿수 관세 유탄을 맞게 되자 미·중 무역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 관세가 오르면 사업 전략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물류업체 프롤로지스의 해미드 모거렘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에 “교역에

어떤 방식으로든 끼어드는 것은 경제에 세균이 된다”며 “그 결과로 세계 경제는 아마도 둔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전쟁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치적으로 삼았던 미국 주가 상승세가 꺾이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타하고 있지만, 시장 혼란의 상당 부분은 무역 전쟁 탓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는 무역전쟁 뉴스가 올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를 6%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올해만 2조달러(약 2천252조원) 증발해 부진의 늪을 헤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상품·서비스 무역 규모 증가율이 지난해 5.2%, 올해 4.2%, 내년 4.0%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전망치는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7월 예상치보다

각각 0.6%포인트, 0.5%포인트 낮아졌다.

이탈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전쟁 확산 가능성을 내년 3월까지로 90일간 미뤄놓았지만, 리스크가 사라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통 율릭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휴전 합의로 3가지 리스크가 살아났다면 “첫째로 양국이 협상에 실패해 관세가 더 오를 수 있고, 둘째로 올해 수출 물량이 내년에 줄어든 것이고, 마지막으로 PMI부터 페덱스 20의 수정과 같은 조기 경고신호가 수요 둔화가 드러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전쟁 장기화가 내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 세사르 로하스 씨티그룹 글로벌마켓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2018년의 무역 일탈과 2019년의 관세 관련 불안감이 무역과 투자 계획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추가 쓰나미 우려 긴장

사망자 429명으로 늘어

인도네시아 수다 해협 일대에서 쓰나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뉴스포털 리프트6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의 드위코리타 카르나와티 청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아낙 크라타우 화산에서 폭음과 분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다 해협 일대에선 지난 22일 밤 쓰나미가 발생해 최소 429명이 숨지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난 당국은 수다 해협에 있는 화산섬인 아낙 크라타우의 남서쪽 경사면이 분화 충격으로 붕괴해 해저 산사태와 쓰나미를 연쇄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르나와티 청장은 “수백 차례 이상 충

격이 누적되면서 칼데라 주변 벽면이 약해지고 있다. 칼데라 내에 폭우가 쏟아져 들어가는 것도 상황을 나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산 경사면이 재차 붕괴해 쓰나미가 재발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해안에서 500m에서 가장 1km 이상 떨어져서, 주변보다 10m 이상 높은 고지대에 머물라”고 당부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아낙 크라타우 화산 주변에 조수 관측기를 설치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지에선 22일 발생한 쓰나미의 크기가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자들은 수다해협을 끼고 있는 반덴주 판데글랑 해안에 밀려온 쓰나미의 높이를 2~5m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불이익 감수 않겠다”

분담금 증액 연일 압박

한미 분담금 협상 험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불이익은 감수하지 않겠다’며 전날에 이어 이를 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실상 원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 파병 장병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점이 나와 (그 이전의) 다른 어떤 대통령을 다소 차별화시키는 대목”이라고 말했다고 풀 기자단이 전했다.

이어 “그 누구도 이러한 질문들을 (동맹국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풀 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이 방위비 분담을 더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글을 통해 시리아 철군을 비롯한 동맹관 등에서 견해차로 전력 사퇴기로 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멕시코 서부 국경도시인 티후아나에서 14일(현지시간)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개라벤)의 한 소녀가 국경 장벽을 수놓은 이름과 사연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중미 과테말라 출신의 7세 소녀가 지난주 미국 국경순찰대에 구금된 뒤 탈수증과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성탄절에... 미국경역류 과테말라 아동 또 숨져

이달 초 7세 소녀 이어 두번째

미국 국경순찰대에 구금된 중미 과테말라 출신의 8세 소녀가 25일(현지시간) 새벽 숨졌다고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밝혔다.

앞서 과테말라 출신의 7세 소녀도 이달 초 미국 국경 역류 도중에 탈수증과 쇼크 증세를 숨진 바 있다.

CBP에 따르면 미국-멕시코 국경지대

에 구금 중이던 이 소년은 크리스마스이브인 전날 ‘잠재적 질병의 징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보호자인 아버지와 함께 뉴멕시코주 엘라마고도의 ‘제럴드 챔피언’ 지역으로 센터로 옮겨져 감기와 고열 진단을 받았다.

CBP는 구체적인 구금 장소를 밝히지 않았지만, 엘라마고도는 주요 국경지대 도시인 텍사스주 엘패소에서 북쪽으로 90마일(145km) 떨어진 곳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소년은 병원에서 90분간 머문 뒤 항생제와 진통·해열제 처방을 받고 퇴원 조치됐다. 그렇지만 저녁에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을 보여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숨졌다고 CBP 측은 설명했다.

사망 시간은 자정을 막 넘긴 직후라고 CBP는 설명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성탄절 야경 미사와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연합뉴스

中 ‘우주굴기’ 속도... 올 로켓 발사 美 첫 추월

중국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보다 많은 수의 로켓을 발사하며 ‘우주굴기’의 속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항공우주 정보 웹사이트 로켓론치를 인용해 25일 기준 중국이 올해 37번째 로켓을 발사했다면서 이는 미국 34대, 러시아 18대보다 많은 수라고 26일 보도했다.

중국은 전날 오전 쓰촨성에 있는 시장 위성발사센터에서 통신기술 테스트 위성인 창정 3호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번 주에 로켓을 각각 1대 더 발사할 예정이다.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올해가 중국이 미국을 연간 우주 로켓 발사 수에서 미국을 처음으로 앞지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중국의 우주 탐험 노력에서 이정표라고 말했다.

왕쥔 베이징항공우주대학 교수는 전날 발사한 위성이 양자 통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테스트하는 데 활용되며 군사 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보다 우주 경쟁에 늦게 뛰어들이지만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 덕분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영국 여성 경찰관 성희롱 6년간 450건

징계 해고는 24명에 그쳐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는 영국에서도 여성 경찰관들이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 시달리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 신문인 가디언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영국에서 여성 경찰관이 동료나 상관으로부터의 성희롱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사례는 450건에 달했다.

가디언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 43개 기관 중 런던경찰청 등 15곳을 제외한 28곳만 자료를 내놓았다며 영국 경찰 전 반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문제는 이번에도 드러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영국공공부문노조(Unison)

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약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가량의 응답자는 동료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들었고, 5명 중 한 명꼴은 노골적인 내용의 이메일이나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약 4%의 응답자는 강제로 성관계까지 가졌고, 8% 정도는 성적 인호의 특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조사를 맡았던 런던경찰청(LSE) 경제학부 부설 만하임 범죄학센터의 제니퍼 브라운 교수는 여성 경찰관이 겪는 성적 괴롭힘을 영국 경찰 내의 “숨겨진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난 6년간 성희롱 혐의가 드러나 징계를 받아 해고된 사람은 24명에 그쳤고, 48명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뒤 연금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길을 택했다. /연합뉴스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씩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
- 문의. 010-6834-7400

